

## 후타이지 절 (不退寺)

이 불교 사찰은 헤이안 시대(794~1185) 초기 황실의 일원이자 유명한 시인이었던 아리와라노 나리히라(825~880)가 847년에 건립한 곳입니다. 후타이지 절은 나리히라와의 연관성과 나리히라가 직접 조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 관음보살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사찰의 세 가지 주요 건축물은 다보탑과 남대문, 그리고 관음보살상과 기타 불상이 안치된 본당으로 가마쿠라 시대(1185~1333)에 지어졌습니다.

후타이지 절을 건립하기 전 이 부지는 806년부터 809년까지 재위하다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 왕위에서 물러나야 했던 헤이제이 천황(773~824)의 소유였습니다. 810년 왕위 복권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헤이제이는 나라로 은거하여 그곳에 사저를 짓고 스님이 되어 궁정 생활에서 물러났는데, 이 사저는 아들인 아보 친왕(792~842)이, 그 후에는 손자인 아리와라노 나리히라가 물려받았습니다. 나리히라는 헤이안 시대의 가장 유명한 역사적 인물 중 한 명입니다.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용되곤 하는 ‘와카(일본 고유의 정형시)’뿐만 아니라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연애사로도 유명합니다.

이 사찰은 유서깊은 전통과 소장 중인 여러 조각상에 더해 500여 종에 달하는 화초가 우거져 있습니다.